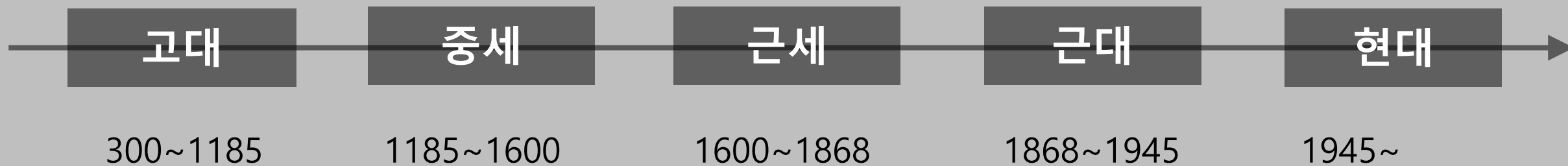



9. 메이지유신과 근대화

부산대학교 2024년 여름계절수업 <일본의 역사와 문화>

조 승 미

일본사 연표





주제

- 무사정권의 멸망
- 메이지유신과 근대화
- 서양 열풍

공무합체책(公武合體策)의 좌절과 막부 멸망

- 공무합체책: 막부와 조정이 힘을 합쳐 대외위기 극복하자는 막부의 방책
← 반막부세력인 존왕양이파 견제 의도
- 황녀 가즈노미야(和宮)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徳川家茂)14대 쇼군 1858~1866의 혼인
- 이에모치와 고메이 천황121대 천황 1846~1866의 연이은 병사(病死)로 공무합체노선의 중단
-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15대 쇼군 1867~1868의 대정봉환(大政奉還)1867
 -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공의(公儀) 체제 (다이묘 회의)
 - 실상은 도쿠가와 중심의 봉건연방제 계획
 - 조슈·사쓰마 번의 반발
 - : 쿠데타 일으켜 요시노부에게 관위를 버리고 영지를 반납할 것 요구(辭官納地)
 - 보신(戊辰)전쟁1868~69
 - 에도성(江戸城)의 무혈개성(無血開城)1868



— 新政府軍進路
— 旧幕府軍進路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



메이지유신(明治維新)¹⁸⁶⁸

- 조슈·사쓰마를 중심으로 한 존왕양이 세력들의 왕정복고 선언 쿠데타
- 일본의 중하층 무사들에 의해 촉발된 위로부터의 정치적 혁명
- 막부의 지배 체제 해체 후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 수립
- 막부 타도의 명분이었던 양이를 버리고 개국으로 전향
 - 서양을 모방하고 뒤따르는 실용주의 주창
 - 일본의 군사적 강화를 1차 목표로 삼으며 근대화를 통한 부국 지향 (富國強兵)

5개조 서문¹⁸⁶⁸

1. 널리 회의를 열어 만기(萬機)는 공론에 따라 결정한다.
2. 상하가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활동한다.
3. 관리와 무사뿐 아니라 서민도 각자 뜻한 바를 이루어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구래의 누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를 따른다.
5. 전 세계에서 널리 지식을 구해 황국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

I 이와쿠라(岩倉) 사절단

- 19C 후반 1871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대표로 미국과 유럽에 파견된 대규모 사절단
- 목적은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교섭 및 서양 각국의 제도 문물 조사
→ 조약 개정은 실패했으나 약 2년에 걸쳐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시찰하고 귀국
- 사절단의 결론
: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근대화의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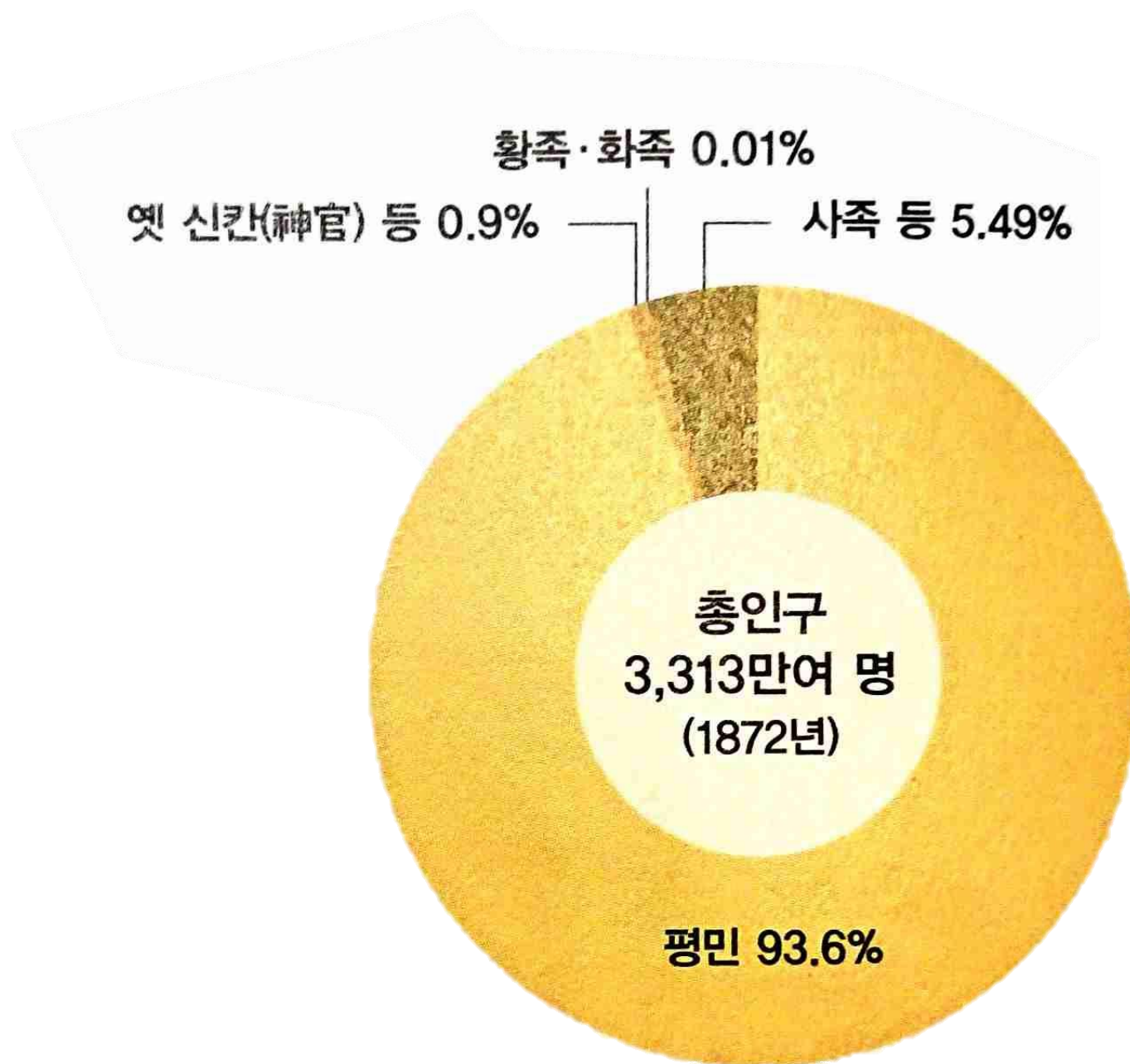




I 근대적 중앙집권국가로의 길

- 판적봉환(版籍奉還)1869
 - 조슈·사쓰마·도사·히젠의 다이묘가 조정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시작
 - 모든 봉토와 영민은 천황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확립
- 폐번치현(廢藩置縣)1871
 - 280여 개 번 → 70여 개 현으로의 전환
 - 메이지(明治) 정부의 재원 마련 목적
 - : 일본 전국의 세금 징수권과 군사권 모두 장악
- 급속한 변용에 반발이 없었던 배경에는 근세 시기의 독특한 토지 소유 관념
 - : 다이묘를 비롯한 무사 계급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통치권을 지닌 것에 불과

메이지 시기 신분별 인구통계



I 무사들의 불만

- 지배층으로서의 특권 박탈
 - 징병제의 도입 1873과 폐도령(廢刀令) 1876
 - 질록(秩祿) 처분 1876
- 세이난(西南) 전쟁의 발발 1877
 -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중심으로 한 무사들의 무력 봉기
 - ← 정한론 정변에서 패배 후 중앙 정계에서 축출된 사이고의 불만
 - 메이지 정부의 철저한 반란 진압
-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의 자유민권운동 1873~
 - “납세자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있으며 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현해야 한다”
 - 사쓰마·조슈 파벌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 민주주의 주장
 - 호응하는 민중 잠재우기 위해 10년 내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 약속 1881

I 정한론(征韓論)의 부상

- 메이지 정부의 국교 수립 요청과 조선의 거부
: 청일수호통상조약1871을 근거로 한 조선 압박
- 외교보다 군사력으로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론 득세
-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사족들의 불만 해소 방안
- 정한론 정변1873
→ 사이고 다카모리·이타가키 다이스케 등 낙향



사이고 다카모리와
세이난 전쟁







이타가키 다이스케



메이지 헌법 1889

-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한 흠정(欽定) 헌법의 형태
- 군주권이 강조된 독일형 헌법
 - “만세일계의 신성불가침인 천황이 나라의 원수이자 통치권의 통괄자”
 - 제정 의도는 군권의 우위, 민권의 억제
-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천황으로의 막강한 권력 집중
- 천황은 초정치(超政治)적인 존재로 정무 참여의 실상은 일반에 공포되지 않음
- 통수권 독립제도
- 의회와는 별도로 원로원(元老院) 설치



圖式發布之圖

楊沙刺廷筆

中國歷史博物館藏
此圖為北京
宣統元年正月
繪於北京



원로(元老)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메이지 초기의 서양 열풍

- 서양인들이 불쾌하게 여길 만한 문화 및 관습 제재
← 서양이 일본을 야만이라 여기는 이상 불평등조약 개정 어렵다고 인식
-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맹목적인 서양 추종 열풍
 - 단발령과 서양식 양력 채택
 - 육식 권장
 - 서양식 건축양식 도입
- 메이로쿠샤(明六社)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東京銀座
煉瓦造
座要路
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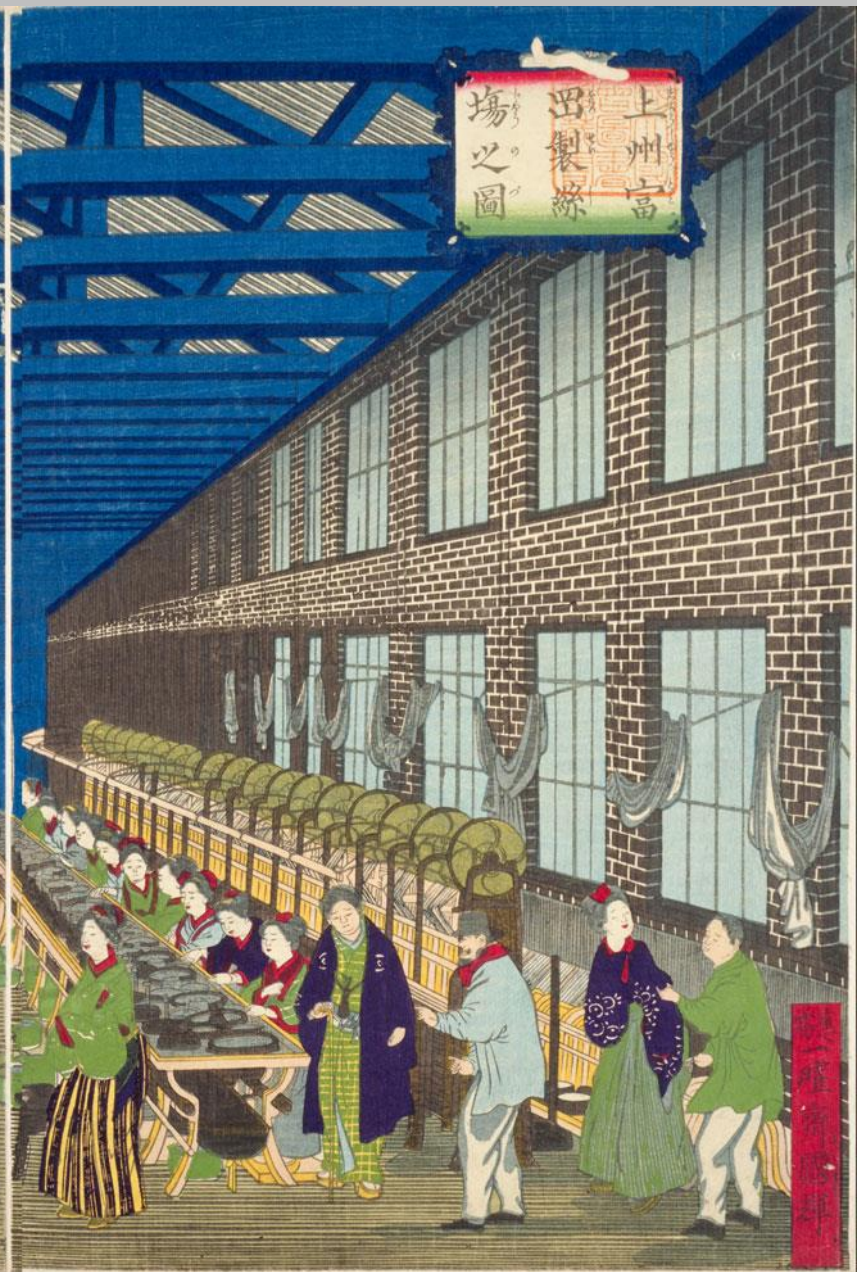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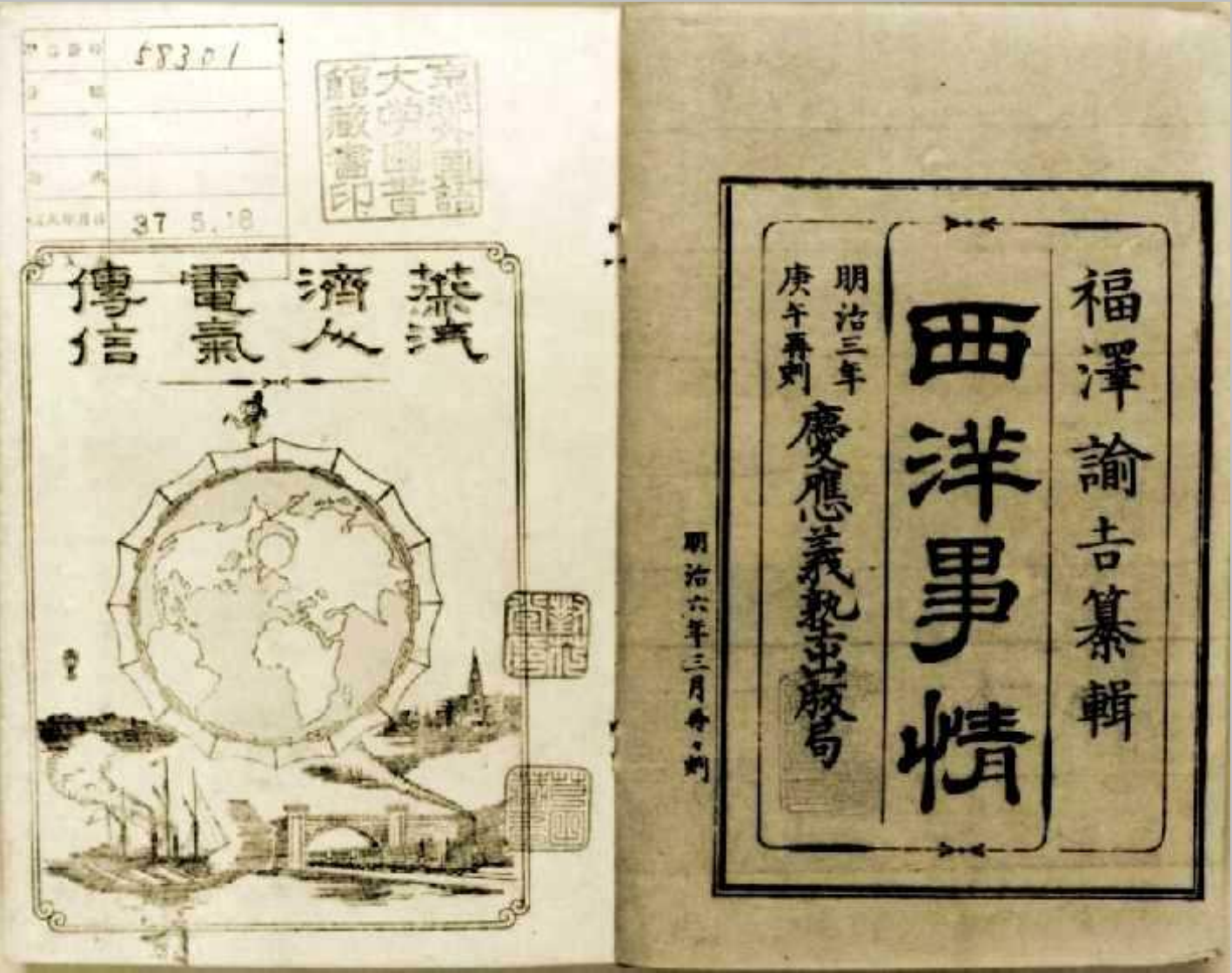
貴顯舞踏の略呈

舞臺劇
西森本版





후쿠자와 유키치 『서양사정(西洋事情)』



감사합니다